

박셀바이오, 베트남 ‘빈퓨처상’ 어워드로 혁신적인 세포치료제 성과 발표**▶이제중 대표, 글로벌 시장 개척 위해 현지 주요 기관 등과 협력 논의**

<2022-12-19> 박셀바이오(대표 이제중)가 19 일(현지시간) 베트남 빈그룹(Vingroup)이 주관하는 ‘VinFuture Prize’(빈퓨처상) 어워드에 초빙받아 혁신적인 세포치료제 성과를 발표한다.

빈그룹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으로 국내에선 ‘베트남의 삼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빈퓨처상은 빈그룹이 ‘베트남의 노벨 과학상’을 표방하며 전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사와 과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년 제정했다. 총 상금은 450 만달러(약 58 억 9500 만원)에 달하며 대상 수상자 상금은 300 만달러(약 39 억 3000 만원)으로, 노벨상 수상자 상금(1000 만크로네, 약 13 억 2400 만원)보다 많다.

글로벌 시장 개척과 베트남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19 일 오후 빈퓨처상 어워드의 주요 행사인 ‘생명을 위한 과학: 정밀 암 치료(Science for Life: Precision Cancer Therapy)’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제중 대표는 ‘암에 대한 혁신적인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 적용(Clinical application of innovative cellular immunotherapy for cancer)’을 통해 박셀바이오의 혁신적인 파이프라인과 진행성 간암 치료제 임상 성과 등을 소개한다.

이제중 대표는 19 일 저녁에는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빈퓨처상 어워드 2022 시상식(VinFuture Prize Award Ceremony 2022)’에서 노벨상, 밀레니엄 기술상, 튜링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베트남 주요 정부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 20 과 21 일에는 빈그룹 산하 의료재단 등 베트남 주요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셀바이오는 2010 년 설립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자연살해(NK)세포를 이용한 Vax-NK 플랫폼, 차세대 항암면역치료제인 Vax-CARs 플랫폼, 박스루킨-15(Vaxleukin-15)를 포함하는 동물용의약품 플랫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Vax-NK 플랫폼에서는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Vax-NK/HCC 임상 2a 상 연구를 진행중이며, 진행성 췌장암과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준비중이다. Vax-CARs 플랫폼에서는 고형암과 혈액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CAR-T 및 CAR-NK 파이프라인을 연구개발 중이다. CAR(키메라 항원 수용체)에 골수침윤림프구(MILs)을 적용한 차세대 다발골수종 치료제 CAR-MILs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박셀바이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빈퓨처상 어워드에 초빙받았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차원에서 부상하는 최대 신흥시장 중의 하나인 베트남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셀바이오 이제중 대표